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KNIGHTS AND BIKES

가제 : 자전거 기사단

저자 : Gabrielle Kent

출판사: Knights Of Media

발행일: 2018년 8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모험



- * 아마존 아동도서 신작 베스트셀러 3위, 범죄&스릴러 부문 베스트셀러 아동도서 5위
- * “스릴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하는 책. 작가는 우리가 기다려온 판타지 세상을 만들어냈다.” - 『ARTEMIS FOWL』의 작가 이온 콜퍼
- * 영국 영화텔레비전예술 아카데미(BAFTA) 상 수상자, 렉스 크로위(Rex Crowie)의 흑백 일러스트레이션 포함

조용하고 평온한 섬 펜퍼지에서 아빠와 둘이 사는 아홉 살 디멜자는 같은 반 친구들과는 좀 많이 다르게 살고 있다. 아빠가 캐러밴 공원의 주인인 덕분에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캐러밴에서 따로 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홍카아아아악’하고 우는 캡틴 흥커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 다른 점은 디멜자가 예쁜 인형이나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비디오게임이나 만화책에 푹 빠져 사는 디멜자는 자연히 친구도 별로 없었고 캐러밴에 친구가 놀러 온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난데 없이 디멜자의 캐러밴에 누가 찾아왔다. 캡틴 흥커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난리를 치는 통에 괴물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건만, 살금살금 다가와 문을 잡아당긴 범인은 같은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마지막 배를 타고 펜퍼지 섬에 도착해서 잘 곳을 찾고 있다는 이 미스터리한 소녀를 하룻밤 재워주기로 한 디멜자는 이 작은 배려가 신나는 모험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태어나서 꼭 펜퍼지에서만 살아온 디멜자는 섬 주민들을 전부 알고 있었기에 까만 머리카락에 피부가 갈색인 이 낯선 소녀가 외부인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더욱 희한한 것은 이 소녀의 이름이 성도 없이 ‘네사’가 전부인데다 열 살도 채 안된 나이에 혼자 이 섬까지 배를 타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고아라서 딱히 머무를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이라는 네사의 말에 더 캐묻지 않기로 마음 먹은 디멜자는 펜퍼지에 있는 동안 캐러밴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한다. 네사는 디멜자에게 아빠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사의 진지한 눈빛에 디멜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다.

두 사람의 모험은 다음 날,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였던 디멜자의 어머니는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섬 주변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멋진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모든 작품들은 캐러밴 공원과 가까운 곳에 만든 골프장에 전시되어 있었다. 새로 생긴 친구에게 어머니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던 디멜자는 네사를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펜퍼지 섬의 유명한 전설이 골프장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에 담겨 있다고 알려준다. 섬 사람들이면 먼 옛날, ‘펜퍼지 기사단’으로 알려진 여러 명의 기사들이 항해를 떠났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귀한 보물을 발견한 후 벌어진 이상한 일들에 관한 전설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기사들은 보물을 숨겨둘 곳을 찾던 중 펜퍼지 섬을 발견하고 거대한 성을 지어 공공 묻어두었는데, 그 뒤부터 기사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무서운 사고를 당해 줄줄이 목숨을 잃었다. 남은 기사들은 보물에 저주가 걸려 있음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지만 너무 늦은 시도였다. 보물을 다시 꺼내려던 기사들은 전부 빼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이 되어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전설의 결말이었다. 펜퍼지 섬 주민들은 저주를 두려워했지만 보물을 탐내는 외부인들이 계속 섬을 찾아와 곳곳을 뒤지곤 했다. 디멜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네사는 골프장 한 구석에 세워진 자그마한 헛간도 보여달라고 했다. 어머니의 그림들을 모아서 벽에 걸어놓은 그곳을 둘러보던 네사는 커다란 랍스터 모양으로 생긴 물건을 모르고 떨어뜨리는데, 등딱지가 열리면서 디멜자가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노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단번에 어머니 글씨를 알아본 디멜자는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화들짝 놀란다. ‘펜퍼지 기사단의 보물’이라고 적힌 노트에는 어머니가 직접 그리고 써둔 조사 일지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전설 속 보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네사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디멜자에게, 어머니가 미처 끝내지 못한 보물찾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디멜자와 아빠가 사는 캐러밴 공원에 커다란 포크레인과 드릴이 나타나 모두 갈아 엮어 새 건물을 짓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전해지자 디멜자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다. 아빠와 캡틴 혼커스까지 세 식구가 살 집을 마련하려면 보물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디멜자는 캡틴 혼커스를 옆구리에 꼭 끼안고 겁이랴곤 전혀 없는 새 친구 네사와 함께 어머니의 노트를 들고 보물 찾기에 나선다. 누구 하나 평범하지 않은 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를 타고 섬을 누비는 두 소녀의 모험은 공중을 가르며 날아오는 원반이며 물 풍선, 번기 뚫는 ‘뽕뚫어’ 등 별의별 물건들로 위기를 맞이하지만, 두 사람의 보물찾기는 영리한 전략과 우정이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되어 점점 더 비밀의 열쇠에 가까이 다가선다. 펜퍼지 섬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을까? 골프장을 확장하려다 절벽에서 그만 추락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어머니의 노트에 등장하는 1980년대 음악과 물건들이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쾌하고 신나는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가브리엘 켄트(Gabrielle Kent)는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게임 개발에 참여했다. 현재는 티사이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게임 개발 기술을 가르치면서 교내 ‘애니맥스 애니메이션·컴퓨터 게임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Alfie Boom』 시리즈가 있다.

제목 : IF YOU'RE OUT THERE

가제 : 어디에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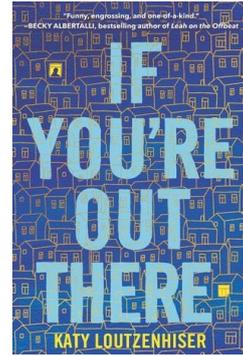
저자 : Katy Loutzenhiser

출판사: Balzer + Bray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pre-empt 출판계약 체결 / 프랑스 판매 완료

* “재미 있고 흡입력 있는, 비견할 수 없이 특별한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작 『Leah on the Offbeat』의 작가 베키 앨버탈리

* “흥즈를 연상시키는 미스터리와 러브 스토리가 결합된, 엄청나게 재미 있는 이야기” - 베스트셀러 『The Strange Fascinations of Noah Hypnotik』의 작가 데이빗 아놀드

고등학교 졸업반을 앞둔 여름방학, 친 자매처럼 붙어 다니던 두 친구 중 한 사람이 멀리 이사를 떠난다. 스마트폰, 이메일 등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사실에 그나마 서로를 위로하며 아쉽게 이별한 두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소식이 마구 올라온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평생 변치말자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진심 어린 우정이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강그리 깨질 수도 있을까? 상대가 고하는 싸늘한 이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 잰은 그럴 수 없었다. 시카고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간 프리야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은 바보처럼 질척대지 말고 그냥 두라고 조언했지만, 잰은 프리야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무시 당하고 무너진 자존심에 움츠려 있던 잰은 새로 사귀 친구 로건의 도움을 받아 프리야를 직접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 입증된 놀라운 진실과 맞닥뜨린다.

프리야와 잰은 여름 내내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헤어질 날을 준비했다. 프리야는 홀로 키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계부와 함께 살고 잰은 부모님이 이혼을 결정한 터라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편했다. 방학 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두 사람은 돈을 모아서 겨울이 되면 인도로 봉사활동을 떠날 생각에 잔뜩 부풀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래 여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6주간의 봉사활동 계획은 엄마가 물려준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프리야의 결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잰을 비롯해 자원봉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꽤 긴 시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기에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프리야와 잰에게는 속 시끄러운 집안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시간은 쏠살같이 흘러 프리야는 캘리포니아로 떠나고 잰은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이

다들 ‘네 반쪽 어디 갔냐’고 물을 만큼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된 것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마땅히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친구가 없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건 프리아가 떠난 직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서 새로운 동네가 어떤지, 새 집은 어떨고 그 먼 곳까지 가는 길은 어땠는지 할 얘기가 태산일 텐데 문자 한 통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쁘겠거니, 생각했던 짬은 배신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나 마약 시작했어! 그것도 엄청 많이 먹어대고 있다고!’ ‘나 임신인 것 같아’ ‘레즈비언 연애 경험담!’ 같은 아주 자극적인 거짓 제목을 일부러 달아서 메일도 수십 통 보냈지만 단 한 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급기야 짬은 프리아가 말을 하지 못했어도 단단히 화가 난 건 아닌가, 하는 자책까지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동안 둘이 나누는 우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무 자르듯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9월이 되고, 새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은 프리아가 캘리포니아에서 기존의 인간관계를 싹 청산하고 이미지도 확 바꿔서 새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프리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짬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다. 프리아는 연락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일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스페인어 시간에 짝이 된 전학생 로건은 대다수가 신경 과민이라고만 여기는 짬의 고민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 키가 훗칠하고 미남인데다 유머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짬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내면서 프리아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짬의 가정에 힘을 보탤다. 짬이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글이나 사진이 전부 두 사람이 잘 아는 누군가의 글 스타일과 소름 끼칠 만큼 동일하다는 점이었다. 프리아의 계부, 밴의 어머니는 일년에 한 두 번 프리아의 집에 찾아올 때마다 온 집안 화장실이며 부엌 선반에 ‘오늘의 한 마디’ 같은 명언을 붙여 놓곤 했는데, 바로 그런 글들이 프리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짬은 ‘우정 규칙’이라는 제목 아래 프리아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쓰곤 했는데 그 노트에도 프리아가 ‘격언이나 명언 정말 싫어’라고 딱 하니 써 놓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할머니만 왔다 가면 불교 수도승처럼 그런 문구에 취해 사는 할머니의 우스꽝스러운 취미를 마구 놀리곤 했는데, 그런 프리아가 질겁하던 그런 글들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릴 가능성은 영에 가까웠다. 의문투성이인 셀카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다시 잠적해버린 프리아를 나선 짬은 마침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갇혀 있는 프리아를 발견한다. 자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찾아내주기를 바라던 친구의 소리 없는 외침을 인지하고 범인을 추격해가는 긴장감 넘치는 과정이 진한 우정과 막 피어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절묘하게 조합된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티 루첸하이서(Katy Loutzenhiser)는 모든 칼리지를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희극 배우로 활동했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